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16



Contents

※ 2026.2.5.(목) 기준(대상 기간 : 2026.01.29.~2026.02.04.)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탄소중립 중소기업에 최대 6억 지원, 투자연계형 신설 (2026.02.02) 1
- 군 급식에 '저탄소 인증 축산물' 첫 적용, 공공급식 탄소중립 실험 본격화 (2026.02.01) 1
- 미래에너지·환경 분야 7개 신기술 발굴, 탄소중립 선도 (2026.01.30) 2
- '헌법불합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시한 임박, 공론화 시동 (2026.02.01) 2
- 부여군, 수소충전소 구축 착공으로 탄소중립 도시 전환 본격화 (2026.02.04) 2
- 충북도, 탄소중립 실천 확산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 추진 (2026.02.04) 3
- 전북도의원,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방안 마련 필요 강조 (2026.02.04) 3
- 충남도, 탄소중립 마을공동체 활성화·마을관리소 운영 사업 추진 (2026.02.03) 4
- 인제군,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 (2026.02.03) 4
- 천안시, 안전과 탄소중립으로 미래 도시 선도 (2026.02.03) 4
- 인천 계양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탄소중립 사회 실현 (2026.02.02) 5
- 진안군, 탄소중립 실현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출범 (2026.02.02) 5
- 창원시, 시민 일상 바꾸는 생활밀착 정책 속도...탄소중립포인트 제도 도입 (2026.02.02) · 6
- 유성구, 종이 없는 행정으로 탄소중립 전환 (2026.02.02) 6
- 충북도, 도민 맞춤형 탄소중립 용어사전 발간 (2026.02.01) 6

- 경북도, 재생에너지 확대 업무협약으로 탄소중립·지역경제 동시 추진 (2026.02.01) 7
- 전북자치도, 탄소중립 전환 위해 다회용기 사용 지원 대폭 확대 (2026.02.01) 7
- 여수시,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원으로 탄소중립 추진 (2026.01.31) 7
-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 현장방문 (2026.01.30) 8
- 천안시, '탄소중립 시민 전문가' 70명 첫 배출 (2026.02.01) 8
- 인천시, 2045년 탄소중립 향해 전기차 보급 가속화 (2026.01.30) 9
- 경산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시민 참여 원탁회의 결과보고서 발간 (2026.01.29) 9
- 강원도, 전기차 7838대 보급으로 탄소중립 가속화 (2026.01.29) 9

■ AI 분야 10

- 조달청, 공공조달 전반에 'AI 대전환' 추진 (2026.02.04) 10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캐나다와 철강·조선·방산·AI·우주 MOU 체결 (2026.01.31) .. 10
- 천안시, 대학·직업계고와 AI 인재 양성 협력 (2026.02.03) 11
- 광주시,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본격화 (2026.02.01) 11
- 광주 광산구, AI 기반 24시간 재난상황실 본격 가동 (2026.02.01) 11
- 서울시, 수서~양재 '피지컬AI 벨트' 조성에 1000억 투입 (2026.01.30) 12
- 송파구, AI 음성인식 비상벨 확대 설치 (2026.01.29) 12
- 부산 사투리 학습 '민원 AI' 정확도 90% 돌파 (2026.01.29) 13

-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13

■ 탄소중립 분야 13

- 주왕산국립공원·청송군, 폐건전지 순환으로 탄소중립 실천 (2026.02.02) 13

▪ AI 분야 14

- 부산항만공사, '피지컬 AI' 도입 본격 추진 (2026.01.30) 14

-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15

▪ 탄소중립 분야 15

- 탄소중립 규제에 LNG선 올라탄 K조선 역대급 실적 반등 (2026.02.02) 15
- 대전·충남 탄소중립전환포럼, 에너지전환 전략·민관 협력 논의 (2026.01.30) 15
- 네덜란드 법원, 정부에 보네르섬 주민 보호 위한 탄소중립 계획 수립 주문 (2026.01.30) 16
-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유·초·중·고 탄소중립 환경교육 체계 구축 주장 (2026.01.30) · 16

▪ AI 분야 17

- 씨어스, 지난해 영업이익 163억으로 국내 의료AI 최초 연간 흑자 달성 (2026.02.04) 17
- 르노코리아, 필라트에 ChatGPT 기반 생성형 AI 기술 적용 (2026.02.04) 17
- LG·삼성,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시장 경쟁 본격화 (2026.02.03) 17
- 우리금융, AI 탐지 등 소비자보호 '사전 예방'으로 전면 전환 (2026.02.03) 18
- LS, AI 사업 호조에 지난해 매출 32조 역대 최대 달성 (2026.02.02) 18
- 명인이노, 퍼스널 AI 슈퍼컴퓨터 MSI EdgeXpert 무상 보증 3년 제품 공급 (2026.02.02) 19
- 롯데이노베이트, 휴머노이드 로봇·AI 결합 미래형 편의점 'AX Lab 3.0' 공개 (2026.02.02) 19
- 동국씨엠, 업계 최초 AI 기반 컬러강판 표면결함검출 기술 개발 (2026.01.30) 19
- KAI, 싱가포르 에어쇼 참가...KF-21 초도 고객 확보 활동 (2026.02.03) 20
- 스페이스X, xAI 전격 인수...우주 AI 생태계 구축 본격화 (2026.02.04) 20

- 오픈AI, 아마존·엔비디아·MS로부터 최대 1000억 달러 투자 논의 (2026.01.30) 21
- 아마존, 1만6000명 추가 감원 추진...AI·효율화 가속 (2026.01.29) 21
- 반도체 사이클 무너졌다...AI 시대가 만든 '메모리 역설' (2026.02.03) 21
- AI로 김치 발효 단계 정밀 예측 기술 개발 (2026.02.04) 22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탄소중립 중소기업에 최대 6억 지원, 투자연계형 신설 (2026.02.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모집. 기술 성숙도와 투자 여부에 따라 기술사업화, 현장실증, 투자연계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올해 총 17개 중소기업 선정 예정. - 기술사업화 유형은 최근 3년 이내 탄소중립 관련 특허권 보유 또는 국가 R&D 성공 판정 중소기업 약 10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2억 원 지원. 현장실증 유형은 수요기업 협약서를 보유한 4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6억 원 지원. - 올해 신설된 투자연계 유형은 기후테크 혁신기업과 투자자로 구성된 컨소시엄 3개를 선정해 컨소시엄당 최대 4억 원 지원. 민간 투자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
	<p>☐ 군 급식에 '저탄소 인증 축산물' 첫 적용, 공공급식 탄소중립 실험 본격화 (2026.02.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부가 육군 훈련소 30연대 급식에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를 처음으로 공급. 저탄소 인증 축산물은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이상 줄인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로, 일반 축산물과 구분하여 별도 가공·유통. -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는 2023년부터 도입되어 한우, 젓소, 돼지가 인증 대상에 포함. 인증 평가는 가산정 탄소배출량과 비계량 항목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100점 만점에서 75점 이상 획득 시 인증 취득 가능. - 농식품부는 지난해 학교급식에 이어 올해 군 급식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공공 부문 전반으로 저탄소 축산물 소비를 넓히고, 생산-유통-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정착 추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미래에너지·환경 분야 7개 신기술 발굴, 탄소중립 선도 (2026.01.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래에너지 신기술 학회·출연연 협의체를 개최해 미래에너지·환경 분야 7개 신기술을 선정. 수소, 태양전지, CCU, 자원순환, 기후적응 등 분야의 11개 학회와 12개 출연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2024년부터 운영. - 선정된 7개 신기술은 에너지·자원 통합전략 브레인 플랫폼, 첨단산업 열에너지 관리, HyBridge 차세대 수소, 광물탄산화 및 시멘트 산업 CCU, 초고효율 보급형 태양전지, U-BioRefinery2035, 기후적응형 Green Water-Energy Link 등. - 과기정통부는 선정된 기술을 대상으로 상세 사업계획을 거쳐 2027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35 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 제시.
	<p>□ '헌법불합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시한 임박, 공론화 시동 (2026.02.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2024년 8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2월 3일 공식 출범. 공론화위원회는 여야 간사를 포함해 갈등조정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전문가자문단 15명도 참여 예정. - 핵심 쟁점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2036~2049년 감축 목표가 이번 공론화의 핵심. - 현재가 정한 2월 28일 개정 시한 준수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 5건은 감축 수치에 대해 넓은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어 공론화 과정에서의 합의 도출이 관건.
지자체	<p>□ 부여군, 수소충전소 구축 착공으로 탄소중립 도시 전환 본격화 (2026.0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군이 규암면 나복리 일원에서 수소충전소 구축 착공식을 개최. 총사업비 6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친환경 인프라 사업으로 2026년 7월 준공 목표. 현재 부여군 등록 수소자동차는 약 16대로 충전 인프라 부족이 보급 확산의 주요 걸림돌. - 수소충전소 완공 시 부여군뿐만 아니라 충남 서남부권 전반의 수소자동차 보급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확산에 기여할 전망. 장거리 이동이 잦은 수소차 이용자들의 접근성 개선으로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 촉진 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정현 부여군수는 탄소중립 강화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자원순환 경제 확립을 목표로 수소 에너지 도입을 통한 에너지 다양화와 탄소배출 저감 달성 의지 표명.
	<p>□ 충북도, 탄소중립 실천 확산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 추진 (2026.0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도가 '탄소중립 바로알기 프로그램 및 실천운동' 공모사업을 추진. 관 위주의 캠페인에서 벗어나 민간 네트워크와 협력해 도민 참여형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목적. - 충청북도에 소재한 기관·비영리법인·단체를 대상으로 2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선정된 단체에 총 6000만 원의 사업비 지원. 탄소중립 실천 협력 네트워크 구성, 기념행사 개최, 공동실천 캠페인 등 전개 예정. - 차은녀 기후대기과장은 기후위기 대응에는 도민 개개인의 실천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도민의 일상이 탄소중립으로 변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
	<p>□ 전북도의원,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방안 마련 필요 강조 (2026.0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이 '탄소중립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전북자치도의 탄소중립 실천과 에너지전환 역할,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자리. - 토론회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마을 공동체의 필요성, 햇빛연금 정착을 위한 협동조합 사례, 지역 에너지전환 사례 등이 발표. 배주현 청정에너지수소과장은 2030 재생에너지 자립률 91%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분산형 전력망 구축 추진 의지 표명. - 한정수 의원은 탄소중립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며,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에서 지역 분산형으로 전환해야 전북형 에너지 자치분권 실현이 가능하다고 역설.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충남도, 탄소중립 마을공동체 활성화·마을관리소 운영 사업 추진 (2026.02.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가 '탄소중립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과 '충남 마을관리소 운영 사업'을 본격 추진. 각각 주민 주도의 저탄소 생활 문화 확산과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이 목표. - 탄소중립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 5명 이상 모임·단체를 대상으로 도내 15여 개 단체를 선정해 200만~500만 원 지원. 자원순환 프로그램, 탄소중립 실천 교육·캠페인, 미디어 활동 등이 주요 내용. - 마을관리소는 올해 4곳을 추가 조성하여 노후·저층주거지 주민에게 집수리, 공구 대여, 무인 택배 보관, 마을 순찰 등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소통 거점 역할 확대 추진.
	<p>□ 인제군,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 (2026.02.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제군이 2026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중립 기반 마련 추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총 43억 원을 투입해 태양광 225개소, 지열 49개소 등 총 274개소에 설비 설치 계획.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100가구, 지열 50가구 등 총 150가구에 설비 설치 비용 일부 지원.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445와트급 소형 태양광 설비 35장을 보급하며, 최대 75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 - 인제군은 그동안 태양광 2551호, 지열 591호, 태양열 86호 등 총 3228개소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왔으며, 이는 지역 에너지 자립과 친환경 기반 조성의 주요 성과로 평가.
	<p>□ 천안시, 안전과 탄소중립으로 미래 도시 선도 (2026.02.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시가 '일상 안심도시' 조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시 안전 및 기후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 재난 대응 패러다임을 '사후 복구'에서 '사전 차단'으로 전환하며, AI 기반 자연재난 통합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추진.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단지 내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C-스마트팜(기후대응형 스마트팜) 보급 확대 등 분야별 실행 과제 본격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재난 대응과 탄소중립을 향한 선제적 투자로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천안 완성 의지 표명.
	<p>□ 인천 계양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탄소중립 사회 실현 (2026.02.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계양구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단계적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서 2023년부터 4년 연속 선정. - 올해는 지역 내 주택과 일반 건물 등 총 15개소에 태양광 59kW, 태양열 28㎡, 지열 17.5kW 설비 지원 계획.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과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시설의 에너지 이용 여건 개선이 목표. - 지난해 '2025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유공'으로 인천광역시장 표창 수상 등 성과를 인정받으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반 확대 추진.
	<p>□ 진안군, 탄소중립 실현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출범 (2026.02.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진안군이 주민 소득 증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진안군 햇빛소득 마을 추진단'을 공식 출범.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전문가, 마을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과 주민설명회 개최. - 햇빛소득마을은 마을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고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거나 마을공동 복지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업.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500개씩 조성 목표. - 추진단은 이경영 부군수를 단장으로 행정부서, 전문가, 한전,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인허가, 금융지원 등을 원스톱 지원 예정.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창원시, 시민 일상 바꾸는 생활밀착 정책 속도…탄소중립포인트 제도 도입 (2026.02.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창원시가 주거·돌봄·안전 등 생활 전반의 시민 체감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 올해 국내 최초로 '누비자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시행하여 공영자전거 이용 시 주행거리 1km당 100원, 연 7만 원 한도로 현금 인센티브 지급. - 수요응답형(DRT) '누비다 버스' 운영을 하반기부터 본격 확대하며, 12억3000만 원을 투입해 진해신항 일대를 시범운영 구역으로 선정. 앱 호출로 이용 가능하며 요금과 환승체계는 시내버스와 동일 적용. - 주거 안정을 위해 792억 원을 투입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확대, 통합돌봄사업 본격 추진,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25개로 확대 등 생활밀착 정책 종합 추진.
	<p>□ 유성구, 종이 없는 행정으로 탄소중립 전환 (2026.02.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 유성구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전 부서에서 단계적 추진. 2030년까지 종이 사용량 최대 50% 감축을 공식 목표로 설정. - 2025년 종이 사용량은 월평균 약 56만 장, 연간 약 679만 장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연간 약 335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 기대. 종이 없는 회의·보고 문화 도입, 홍보물 QR코드 적용, 간행물 전자책 제작 의무화 등 추진. - 에코폰트 활용으로 잉크 사용량 약 35% 절감, 과태료 고지서 등 안내문의 알림톡 비대면 방식 우선 적용, 부서별 용지 구매량과 종이 없는 회의 실적 정기 점검 계획.
	<p>□ 충북도, 도민 맞춤형 탄소중립 용어사전 발간 (2026.02.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도가 도민의 탄소중립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충청북도 탄소중립 용어사전'을 제작·발간. 행정기관이 직접 집필한 탄소중립 용어 해설서로,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 - 이 사전은 '제1차 충청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을 토대로 건물·수송·농축산·폐기물·흡수원 등 부문별 핵심 용어와 정책 실행 용어를 체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계적으로 정리. 실제 충북 정책과의 연결 방식도 함께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파벳과 한글 자음 체계로 정리된 색인을 통해 누구나 필요한 용어를 쉽게 검색 가능하며, 공무원, 도민, 학생, 기업 관계자까지 폭넓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
	<p>□ 경북도, 재생에너지 확대 업무협약으로 탄소중립·지역경제 동시 추진 (2026.02.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도가 대구지방환경청 주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대구시, 한국에너지공단 대경본부, 한국전력공사 대경건설지사 등 유관기관 참석. - 기후변화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구조 전환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협약.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반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 연계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모색. - 참여 기관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정보 공유와 사업 협력 강화, 현장 중심 협업 체계 운영을 통해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확산 모델 구체화 및 일자리 기반 확대 효과 기대.
	<p>□ 전북자치도, 탄소중립 전환 위해 다회용기 사용 지원 대폭 확대 (2026.02.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자치도가 올해 다회용기 지원 촉진사업에 카페 90개소, 축제장 102개소, 장례식장 14개소 등 총 214개소 참여 계획. 사업비는 국비 15억 원, 도비 5억 원, 시군비 10억 원 등 총 3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6억 원 대폭 확대. - 지난해 158개소 대상 사업 실시 결과, 1회용품 약 370만 개 감축 및 약 177톤 온실가스(CO₂-eq) 감축 달성. 이는 나무 약 2만7000그루를 심은 효과와 동일한 수준. 축제·행사장에서 전체 감소량의 83.7% 차지. - 설문 참여자 2350명 중 95.1%가 다회용기 사용에 만족. 정부의 '컵 따로 계산제' 도입에 맞춰 다회용기 사용 확대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방안 구상 추진.
	<p>□ 여수시,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원으로 탄소중립 추진 (2026.01.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수시가 2월 4일부터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시작. 올해 총 114대 보급 목표로 88억 원의 사업비 투입. 수소전기승용차 대당 3500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원, 수소버스 저상 3억3700만 원, 고상 3억7000만 원 정액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여수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여수시 소재 기업·법인·단체·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K-EV100 가입 민간기업은 최대 2대까지 지원. - 여수시는 2019년 이후 누적 771대(승용 735대, 버스 36대)를 보급했으며, 전남 최초 특수상용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총 3곳의 수소충전소 운영 중.
	<p>□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 현장방문 (2026.01.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가 권선구 고색동 일원의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 현장 방문. 서부로 일대 LED 가로등 교체 현장 시찰 및 스마트 버스정류장 운영 현황 점검. - LED 가로등 교체 사업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절감 효과와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의 시민 편의 향상 기여도를 확인. 이찬용 위원장은 사업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지원 약속. - 도시미래위원회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속할 계획.
	<p>□ 천안시, '탄소중립 시민 전문가' 70명 첫 배출 (2026.02.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시가 탄소중립지원센터, 남서울대 RISE사업단과 협력해 '탄소중립 시민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마무리하고 수료생 70명 배출. 올해 처음 추진된 교육은 총 8회차 16시간 과정으로 진행. - 교육 내용은 탄소중립 개론과 정책 동향,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공간별 진단 컨설팅, 실천 프로젝트 기획 등 이론과 실습 병행. 수료자에게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명의의 수료증 교부. - 수료생들은 향후 탄소중립 전문 강사로 활동하거나 지역 탄소중립 네트워크에 참여해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이끄는 핵심 인적 자원으로 활용 예정.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인천시, 2045년 탄소중립 향해 전기차 보급 가속화 (2026.01.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가 204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9733대 보급 계획으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 차종별 최대 보조금은 전기승용차(중·대형) 754만원, 전기승합차(어린이통학·대형) 1억4950만 원 등. - 올해 대형·중형 전기화물차 및 소형 전기승합차 추가 지원, 내연기관차 매각 또는 폐차 후 전기차 전환 시 전환지원금 최대 130만 원 추가 지원 등 제도 대폭 개선. - 유정복 시장은 기존 내연기관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함으로써 인천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친환경 정책 지속 확대 강조.
	<p>□ 경산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시민 참여 원탁회의 결과보고서 발간 (2026.01.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산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경산시 탄소중립 시민참여단 원탁회의 결과보고서'를 발간. 지난해 11월 28일 임당 유적 전시관에서 열린 원탁회의에서 도출된 시민 의견을 정리·분석한 자료. - 보고서는 분리배출 인센티브 강화,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 전기차 안전 대책, 체험형 탄소중립 교육 확대 등 생활 밀착형 과제의 시민 제안을 자원순환, 수송,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별로 정리하고 기존 시 정책과 연계. - 서정인 센터장은 시민을 정책 형성의 주체로 참여시킨 의미 있는 성과라며, 시민 제안이 경산시 탄소중립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 추진 계획 표명.
	<p>□ 강원도, 전기차 7838대 보급으로 탄소중립 가속화 (2026.01.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특별자치도가 올해 638억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7838대를 보급 계획. 지난해 4305대 대비 82% 증가한 수치로, 승용 6434대, 화물 1349대, 승합 37대, 어린이 통학차량 18대 포함. - 구매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최대 870만 원, 전기화물차 대형 최대 7800만 원 등이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며, 신설된 전환지원금은 내연기관차 매도·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30만원 추가 지원. 3년 이상 보유 차량에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전기자동차 4305대를 보급해 누적 보급량 2만5000대를 넘어섰으며, 도 전기차 보급률은 2.8%로 2024년 대비 0.4% 증가. 김진태 도지사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감축으로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의지 표명.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p>□ 조달청, 공공조달 전반에 'AI 대전환' 추진 (2026.0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이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공공조달 전 과정을 AI 중심으로 재설계해 AI 산업 성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6대 전략과제 제시. - AI 융복합제품 R&D 과제 우선 선정, AI 기술 혁신공모전 개최, 나라장터 쇼핑물 진입 요건 완화, AI 전용 심사 트랙 신설 등을 통해 AI 제품의 공공시장 유입과 정부의 첫 구매자 역할 수행 추진. - 입찰·평가·가격관리·계약관리 등 조달 업무 전반에 AI Agent를 도입해 행정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제고하며, G-PASS 지정 우대 및 맞춤형 수출 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AI 기업의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 <p>□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캐나다와 철강·조선·방산·AI·우주 MOU 체결 (2026.01.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대통령특사로 캐나다와 노르웨이를 방문, 캐나다와 철강·조선·방산·AI·우주 등 분야에서 양해각서(MOU) 5건 체결.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위한 산업 협력 의지 제시. - 미래 모빌리티, 핵심광물 분야에서도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협력 강화 합의. 노르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웨이와는 1조3000억 원 규모의 '천무' 수출 계약 체결로 올해 첫 대형 방산 수출 성과 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 실장은 잠수함 수주 결과가 6개월에서 1년 후 나올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 건조 능력과 쾌적한 근무환경 제공 가능성을 강조.
지자체	<p>□ 천안시, 대학·직업계고와 AI 인재 양성 협력 (2026.02.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시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천안제일고, 천안공업고와 직업계고 재학생 AI·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난해 추진한 AI 디자인 플랫폼 및 생성형 AI 활용 역량 강화 과정의 후속 조치. - 각 기관은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산업 수요 반영 교육 과정 연계, 교육 운영 지원 및 성과 분석·환류 체계 마련 등에 상호 협력. 시는 행·재정적 지원, 한기대는 교육과정 개발, 각 학교는 학생 선발·관리 담당. - 김석필 권한대행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미래 산업 현장의 핵심 역량을 갖추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지속 가능한 AI 교육 생태계 조성과 청년 지역 정주 환경 조성 의지 표명. <p>□ 광주시,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본격화 (2026.02.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시가 미래차국가산업단지 약 30만 평 일원에 AI와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결합한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와 함께 사전기획용역 착수보고회 및 기획위원회 출범. - 기획위원들은 지속 가능한 시범도시를 위해 앵커기업 유치에 필수적이며, AI집적단지, 미래차산업 기반, 에너지산업 기반시설의 적극 활용 필요성 제언. - 국토부·산업부 국정과제 및 과기정통부 관련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미래 자동차 산업 고도화 전략을 기본구상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 <p>□ 광주 광산구, AI 기반 24시간 재난상황실 본격 가동 (2026.02.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24시간 운영되는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을 본격 가동. AI 기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365 재난 안전 플랫폼'을 도입해 실시간 정보 분석과 판단 기능 강화. 기존에 각각 따로 관리되던 감시 CCTV, 하부도로 차단기, 펌프장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실에서 재난 발생 가능성과 피해 확산 여부를 사전 분석하고, 필요시 하부도로 즉각 차단 및 관련 기관과 통제 상황 실시간 공유 가능. 지난해 금호타이어 화재, 극한 호우 등 연이은 재난으로 대응 체계 개선 필요성 대두. - 광산구는 지난 3월부터 전담 인력 배치, 공간 확보, AI 기반 플랫폼 구축 등 단계적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고 예방부터 조치까지 빈틈없는 안전 행정 실현 추진.
	<p>□ 서울시, 수서~양재 '피지컬AI 벨트' 조성에 1000억 투입 (2026.01.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세훈 서울시장의 '피지컬 AI 선도도시 비전'을 선포하고, 양재 AI클러스터와 수서 로봇클러스터를 잇는 '서울 피지컬 AI벨트' 구축 발표. R&D와 펀드투자 등에 2030년까지 총 1000억 원 투입 계획. - 양재 일대에 '서울 AI 테크시티'를 조성하며, 양재 AI 허브 포함 토지 3만8000㎡를 활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2028년 착공 목표. 서울 전역을 피지컬 AI 테스트베드로 상시 개방. - 피지컬 AI R&D 활성화를 위해 2030년까지 700억 원 투자, '피지컬 AI 전용 펀드' 1500억 원 가동, 기존 AI펀드와 합쳐 총 6500억 원 규모로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유니콘 성장 지원.
	<p>□ 송파구, AI 음성인식 비상벨 확대 설치 (2026.01.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송파구가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한 AI 음성인식 비상벨을 어린이보호구역·골목길 등 총 10곳에 추가 확대 설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등 구조 요청을 자동 인식해 경보음과 함께 CCTV 관제센터를 통한 신속한 경찰 연계 대응 가능. - AI 음성인식 비상벨 운영 성과를 분석한 후 설치 대상 제외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확대 검토 예정.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파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지자체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 수상, 올해 정부 성과금 33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공중케이블 집중 정비 진행 계획.
	<p>□ 부산 사투리 학습 '민원 AI' 정확도 90% 돌파 (2026.01.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가 추진한 '부산형 AI 민원 대응 에이전트 서비스 실증' 사업이 완료되어 민원 응대 정확도 90% 초과 달성. 즉답 민원의 정확한 자료 안내 비율 96.5%, 담당 부서 올바른 추천 비율 95% 기록. - 바이브컴퍼니가 개발한 AI 에이전트는 국가 AI 개발 지원 플랫폼 'AI 허브' 내 경상도 방언 데이터로 부산 사투리를 학습. 사투리로 인한 시스템 오류나 민원 처리 실패 사례 없이 높은 정확도 확보. - 시스템 도입 시 최대 20명의 민원을 동시 처리 가능하며, 부산시는 기술력이 뒷받침될 경우 내년부터 시청 전화 민원 서비스에 해당 시스템 활용 계획.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주왕산국립공원·청송군, 폐건전지 순환으로 탄소중립 실천 (2026.02.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가 청송군과 협력해 폐건전지 수거 및 기부 활동을 본격화. 공원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건전지를 청송군의 '폐건전지 교환 사업'에 참여하여 새 건전지로 교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환된 새 건전지를 지역 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무상 전달하여 환경 보호와 지역사회 나눔을 동시에 실천. 국립공원과 지역사회 상생 협력 모델로 평가. -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폐건전지 수거 캠페인을 정례화하고, 지역 내 다른 환경정화 활동과 연계해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계획.
지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input type="checkbox"/> 부산항만공사, '피지컬 AI' 도입 본격 추진 (2026.01.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항만공사(BPA)가 '피지컬 AI'를 본격 도입하고 '한-UAE 피지컬 AI 기반 항만·물류 공동 프로젝트' 추진 뒷받침 결정.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임문영 부위원장 등과 부산항 신항 방문, AI 기술 실증 및 운영현장 점검. - 해수부와 함께 AI 전문기업, 항만 IT 및 장비개발 기업 전문가를 초청해 'K-스마트 피지컬 AI 항만물류사업추진 간담회' 개최. 부산신항 7부두 자동화 하역장비 시스템과 디지털 항만물류통합플랫폼 '체인포털'에 각 기업 개발기술 결합 방안 논의. - 선박 항만장비제어 디지털트윈 운영기술, 체인포털, 데이터기반 AI서비스 등을 부산항 중심의 하나의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참여 기업들과 지속 협업 계획.
지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민간기업</p>	<p>☐ 탄소중립 규제에 LNG선 올라탄 K조선 역대급 실적 반등 (2026.02.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조선사들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 반등 달성. 한화오션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44.3% 급증한 1조2949억 원으로 추정되며, 조선 3사 합산 영업이익은 6조 원 돌파 전망. - 삼성중공업은 매출액 10조6500억 원으로 9년 만에 연간 매출 '10조 클럽' 복귀, 영업이익 8622억 원으로 12년 만에 최대치 기록. HD한국조선해양은 매출 29조 9332억 원, 영업이익 3조90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2.3% 급증. - 글로벌 친환경 규제 강화로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가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된 결과. 올해도 조선 3사가 연초부터 수주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 등 LNG 터미널 프로젝트 증가로 추가 수주 확대 전망.
<p>대학교</p>	<p>☐ 대전·충남 탄소중립전환포럼, 에너지전환 전략·민관 협력 논의 (2026.01.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충남 탄소중립전환포럼'이 충남대학교 융합교육혁신센터에서 개최.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기후미래, 대전 에너지전환 네트워크가 주관하고 충남대 RISE 사업단 주최, 한국수자원공사 후원. - 기조발제에서 녹색전환연구소 배보람 부소장이 '대전·충남 에너지전환 현황과 지역 전략' 발표, 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방정부 에너지전환 정책과 거버넌스' 발표, 교보증권 남민우 파트장이 신재생에너지 유동화 혁신금융서비스 활용 전략 발표. - 충남대 이영석 연구산학부총장은 대학이 지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참석자들에게 RE100 대청호 고소한 들기름이 기념품으로 제공.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해외</p>	<p>□ 네덜란드 법원, 정부에 보네르섬 주민 보호 위한 탄소중립 계획 수립 주문 (2026.01.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이 그린피스가 카리브해 보네르섬 주민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주민을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에서 적절히 보호하지 못했다고 판결. 보호 조치 강화 주문. - 법원은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2024년 판례를 인용하며, 네덜란드 정부가 시민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보네르섬 주민을 네덜란드 본토 시민과 차별했다고 지적. 보네르섬에 대한 별도의 기후 변화·해수면 상승 대응 계획 수립 요구. - 이번 판결에 따라 네덜란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계획을 18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하며, 정부는 판결을 검토해 항소 여부 결정 방침.
<p>기타</p>	<p>□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유·초·중·고 탄소중립 환경교육 체계 구축 주장 (2026.01.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이 부천시의회에서 열린 환경 세미나에서 '유·초·중·고 탄소중립 환경교육 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 탄소중립 환경교육이 캠페인이나 일회성 체험활동에 머물러서는 실질적 효과 기대가 어렵다고 지적. - 유·초·중·고 전 학년을 관통하는 '끊기지 않는 교육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학교가 최소한의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표준모델과 지원체계 마련 요구. - 성과 평가는 행사 횟수나 참여 인원이 아닌 교육이 실제 학교 운영과 학생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정도로 해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의 제도와 예산 지원 지속 점검 약속.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씨어스, 지난해 영업익 163억으로 국내 의료AI 최초 연간 흑자 달성 (2026.0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씨어스테크놀로지가 지난해 4분기 매출 204억 원, 영업이익 87억 원으로 역대 최대 분기 매출 달성. 연매출 481억7000만 원(전년 대비 495% 증가), 영업이익 163억3000만 원으로 흑자전환하며 국내 의료AI 기업 최초 연간 흑자 성공. - 웨어러블 AI 입원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썬크'의 매출이 전년 대비 1046% 증가하며 전체 실적 견인. 누적 설치 병상 수 1만2000병상을 돌파하고 128개 병원에 도입되며 본격 확산 국면 진입. - 썬크가 노리는 국내 입원환자 모니터링 시장은 약 70만 병상 규모로 추정되며, 설치 기반 확대와 리커링 매출 증가, 차세대 스마트병동 확장이 맞물려 중장기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매김 전망.
<p>민간기업</p>	<p>☐ 르노코리아, 필랑트에 ChatGPT 기반 생성형 AI 기술 적용 (2026.0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르노코리아가 E세그먼트 크로스오버 '르노 필랑트'에 OpenAI의 ChatGPT 기반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한 차량 안내 앱 '팁스(Tips)' 탑재. 'AI 내차 도우미'가 대화 방식으로 차량 관련 정보를 제공. - 디지털 차량 사용 설명서, 새소식, 경고등 안내 등 즉각적 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별도 메뉴로 제공. 차세대 차량용 AI 에이전트 '에이닷 오토'도 최초 적용되어 음성 기능 제어와 개인화 장소 추천 등 가능. - 필랑트는 부산공장에서 생산되어 3월부터 순차 고객 인도 예정이며, 테크노 트림은 3분기 중 출시 계획.
	<p>☐ LG·삼성,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시장 경쟁 본격화 (2026.02.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G전자가 북미 최대 공조전시회 'AHR EXPO 2026'에서 AI 데이터센터용 액체냉각 솔루션(CDU)을 선보임. 콜드 플레이트를 CPU·GPU 칩에 직접 부착하고 냉각수로 열을 식히는 방식으로, 기존 공기냉각 대비 설치 공간이 작고 에너지 효율이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높은 것이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4년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를 약 415TWh로 추정하며, 2030년 945TWh에 이를 것으로 전망. AI 관련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가 주요 증가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 - 삼성전자는 지난해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 '플렉트그룹'을 인수하며 글로벌 HVAC 경쟁력 확대. CDU 기술에 집중하여 데이터센터 대상 공조 시장 진출 추진.
	<p>□ 우리금융, AI 탐지 등 소비자보호 '사전 예방'으로 전면 전환 (2026.02.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금융이 11개 자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전원 참석한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개최. 거버넌스 강화, 보이스피싱 예방, 고난도 상품 불완전판매 근절, 보험상품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 - 우리은행은 생성형 AI 기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와 고난도 상품 판매 제도 개편 병행, 동양생명은 안면 인식 인증 도입 추진, 우리투자증권은 고객 패널을 도입하여 소비자 의견 선제 반영 계획. - 고원명 CCO는 그룹 전반을 관통하는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전환의 공식적인 출발점이라고 평가.
	<p>□ LS, AI 사업 호조에 지난해 매출 32조 역대 최대 달성 (2026.02.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S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31조8250억 원, 영업이익 1조565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매출과 2년 연속 영업이익 1조 원 이상 달성. AI·데이터센터 산업 급부상과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이 주요 원인. - LS전선은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주 확대, LS일렉트릭은 북미 빅테크 데이터센터 전력 시스템과 초고압 변압기 중심 글로벌 사업 성장으로 매출 4조9622억 원, 영업이익 4269억 원 기록. - LS그룹은 향후 5년간 국내 7조 원, 해외 5조 원 규모를 투자하여 전력 인프라 분야 생산능력 확대와 이차전지 소재·희토류 등 신사업 육성 추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명인이노, 퍼스널 AI 슈퍼컴퓨터 MSI EdgeXpert 무상 보증 3년 제품 공급 (2026.02.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인프라 전문 기업 명인이노가 엔비디아 DGX 스파크 기반 퍼스널 AI 슈퍼컴퓨터 MSI EdgeXpert의 무상 보증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 제품을 2월부터 공급. 미니 PC 크기로 기업·산업·연구 분야 AI 워크로드에 최적화. - CES 2026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해외에서도 제품 우수성 인정. 국내 최대 IT 종합 쇼핑몰 컴퓨존과 공동 마케팅으로 합리적 가격 정책과 사전 예약 이벤트 진행. -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NVIDIA DGX STATION 제품과 함께 기업, 공공·교육 기관, 렌탈 시장 등에서 다양한 AI 개발 업무 수행을 위한 선택지로 기대.
	<p>□ 롯데이노베이트, 휴머노이드 로봇·AI 결합 미래형 편의점 'AX Lab 3.0' 공개 (2026.02.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롯데이노베이트가 코리아세븐과 함께 서울 본사 1층에 휴머노이드 로봇과 AI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매장을 운영·관리하는 차세대 미래형 편의점 'AX 랩 3.0' 공개. - 매장 관리자 역할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품 위치 음성 안내, 행사 정보 소개, 결품 확인, 매장 청결 점검 등 수행. '비전 AI' 기술로 CCTV와 AI 시스템이 24시간 매장 모니터링하며 상품 진열 상태와 유통기한 실시간 관리. - AI 플랫폼 '아이멤버' 엔진을 지속 고도화하여 다양한 제조사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자사 솔루션을 적용하고, '피지컬 AI' 서비스 영역을 엔터테인먼트·리테일·건설 등으로 확장 계획.
	<p>□ 동국씨엠, 업계 최초 AI 기반 컬러강판 표면결함검출 기술 개발 (2026.01.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국제강그룹 동국씨엠이 업계 최초로 AI 기반 강판 표면 결함 검출 기술 'DK SDD' 개발 성공. 3년여의 연구 개발 끝에 원천 기술 확보 및 특허 출원 준비 중. 기존 숙련 인력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던 결함 검출 방식을 AI로 디지털 전환. - DK SDD는 규칙 기반 기법과 딥러닝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모델로, 2만여 종 이상의 색상이 혼재된 프리미엄 컬러강판에 적용 가능. 고해상 카메라가 분당 130m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고속 생산 중 결함을 실시간 검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공장 건재용 컬러강판 생산라인에 상용화 완료하였으며, 프리미엄 가전용 라인 성능 검증 테스트 진행 중. 내년까지 전 라인 적용 및 MES(생산관리시스템)과 자동 연동 설계 계획.
	<p>□ KAI, 싱가포르 에어쇼 참가...KF-21 초도 고객 확보 활동 (2026.02.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I가 아시아 최대 항공우주·방산 전시회 '2026 싱가포르 에어쇼'에 참가. KF-21, FA-50, KUH, LAH 등 주력 기종을 전면 배치하고 AI-Pilot 'KAILOT'과 유무인복합체계 영상으로 미래 비전 제시. - 동남아시아 기존 운용국 및 잠재 수출국 정부 고위 관계자, 군 수뇌부와 미팅 예정. FA-50 운영 고객 대상 추가 사업 논의와 함께 KF-21 초도 고객 확보를 위한 활동 전개. - 조우래 수출마케팅 부문장은 세계적으로 검증된 FA-50의 신뢰성과 KF-21의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K-방산의 위상을 높이고 실질적 수출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표명.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해외	<p>□ 스페이스X, xAI 전격 인수...우주 AI 생태계 구축 본격화 (2026.0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이스X가 xAI를 전액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인수하며 통합 기업 가치 약 1조 2500억 달러(약 1815조 원) 규모로 추산. 우주 수송력과 AI 기술을 수직 연결하여 태양광 활용 '우주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 추진. - 머스크는 AI 연산 확장의 유일한 해법은 우주라고 밝히며, 스타십을 활용해 연간 100GW의 AI 연산 능력 추가, 장기적으로 1TW급 확대 가능성 제시. FCC에 최대 100만 기 인공위성 발사 허가 신청. - 중국은 2030년까지 1GW급 AI 전용 우주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으로, 미·중 간 '우주 AI 패권 전쟁' 본격화 우려. 국내 우주 업계는 위성과 AI 융합 서비스 시장에서 독자적 경쟁력 확보 필요성 강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p>□ 오픈AI, 아마존·엔비디아·MS로부터 최대 1000억 달러 투자 논의 (2026.01.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픈AI가 아마존으로부터 최대 500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앤디 재시 아마존 CEO가 직접 주도. 엔비디아는 최대 20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도 수십억 달러 추가 투자 가능성 거론. - 이번 자금 조달은 오픈AI가 추진 중인 최대 1000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의 일부로, 대규모 언어 모델 훈련·운영을 위한 막대한 데이터센터 용량 확보가 목적.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최대 300억 달러 추가 유치 및 상장 가능성도 검토 중. - 칩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동시에 주요 투자자로 나서는 구조에 대해, 적자 상태인 오픈AI의 재무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 제기.
	<p>□ 아마존, 1만6000명 추가 감원 추진...AI·효율화 가속 (2026.01.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마존이 AI 도입 확대와 조직 효율화를 이유로 약 1만6000명 추가 감원 추진. 지난해 10월 이후 진행된 구조조정을 합치면 감원 규모 약 3만 명으로 아마존 설립 이후 최대 규모. - 3만 명은 전체 직원 158만 명 중 물류 인력을 제외한 기업 인력의 약 10%에 해당. AWS, 알렉사, 프라임 비디오, 광고, 디바이스 등 광범위한 부문에서 감원 실시 예정. - 구조조정 배경으로는 팬데믹 기간 전자상거래 수요 급증에 대응한 과도한 인력 채용이 지적되며, 추가 감원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
	<p>□ 반도체 사이클 무너졌다...AI 시대가 만든 '메모리 역설' (2026.02.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설비투자를 집행하고 있음에도 AI 수요 확대에 따른 HBM 편중 현상 심화로 메모리 공급 부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메모리 역설' 발생.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3사가 올해 각각 200억 달러 수준의 설비투자를 확대했으나, HBM은 일반 D램 대비 약 3배의 웨이퍼 소모와 65% 수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p>의 수출로 실제 시장 공급 칩 개수는 정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비디아, 구글 등 빅테크는 2027년 물량까지 선점하기 위해 수천억 원의 선수금을 지불하는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반면, 중소 IT 기업들은 웃돈을 쥐도 물량 확보 불가능한 '승자독식' 구조 고착화.
기타	<p>□ AI로 김치 발효 단계 정밀 예측 기술 개발 (2026.02.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김치연구소 원태웅 연구팀이 전남대 홍영식 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 AI 분석으로 김치의 발효 단계를 9가지 핵심 성분으로 정밀 예측하는 기술 개발. 2022년부터 연구를 지속하여 세계적 권위지 '푸드 케미스트리'에 게재. - 9가지 핵심 성분(젖산, 숙신산, 자당, 과당, 포도당, 글라이신, 글루탐산, 트레오닌, 콜린)을 선별해 김치 숙성 상태를 정밀 예측하는 모델 구축 성공. 기존 관능평가의 주관적 한계 극복. - 배송 시간에 맞춰 김치 발효 정도 조절로 김치 세계화 기여 기대. 삼성전자, LG전자 등 기업의 김치냉장고에 적용 가능하며, 고추장·된장·간장 등 다른 발효식품에도 확장 적용 가능.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